

# SPORTS

2025년 5월 9일 금요일

## 광주FC, 안방서 연속 승점 사냥 나선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연속 승점 사냥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전북현대와의 홈 경기를 치른다.

최근 광주는 홈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이후 홈에서 치른 제주SK FC, 대구FC, 김천상무와의 3경기를 내리 승리로 장식했다.

그 결과 광주는 리그 12경기에서 5승 4무 3패 승점 19로 5위에 자리 잡고 있다. 리그 1위 대전하나 시티즌(승점 27)과는 다소 격차가 있지만, 2위 전북(승점 22)·3위 울산HD(승점 21)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번 13라운드 일정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최상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 또한 좋다. 광주가 리그에서 쟁긴 5승 가운데 3승이 4월 이후 안방에서 치른 3연전에서 나왔다. 이는 홈 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광주의 홈 3연승이 모두 1점차 승부로 실리축구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광주는 지난해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올해는 실리축



### 1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전북현대전

### 5승 4무 3패 승점 19 리그 5위... 최상위 가시권

인 운영까지 정착하며 다양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시작했다. 이는 방증이기도 하다.

광주는 시즌 초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를 치르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적절한 로테이션과 함께 경기 중에도 수시로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 정도 감독이 선수단의 부상 및 컨디션 난조 등 각종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전북전 키 플레이어는 오후성이다. 적전 김천과의 경기에서 직접 연어넌 페널티킥을 결승골로 장식하며 예리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광주가 기록한 5번의 슈팅 가운데 3번이 오후성의 발끝에서 나왔을 만큼 자신감 또한 충분하다. 더욱이 오후성이 전북전을 자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 전주성을 방문해 골 맛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오후성은 후반 김숙한 지역에서 넘어온 변준수의 롭패스를 정교한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낸 후 호쾌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열었다.

광주는 전북을 꺾을 경우, 승점 22점으로 전북과 승점 동률을 이루며 확실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안방 무대에서 연속가도를 달리고 있는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전북을 꺾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의 홈 4연승 도전엔 유튜브 구독자 285만명의 축구 크리에이터 감스트가 함께한다. 특별 게스트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감스트는 사인회, 시축, 하프타임 이벤트 등으로 팬들과 만난다. 구단은 '채널 신진 부스', '광주FC 명예의 발끝', '감스트 vs 조빈' 등의 코너를 통해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퍼퍼저축은행 AIF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은 최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에서 열린 'ACC 미래운동회'에 참여했다.

## “땅따먹기도 AI 시대”... 페퍼스, ACC 미래운동회 참여

### 내달 1일까지 스포츠 타임머신 체험...굿즈 이벤트도

퍼퍼저축은행 AIF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은 최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에서 열린 'ACC 미래운동회'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ACC 미래운동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디지털 스포츠 체험 행사로 예술과 기술,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AIF페퍼스의 협업은 광주시에 위치한 문화예술기관과 프로스포츠단이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의 융합을 실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AI' 정체성을 지닌 AIF페퍼스의 디지털 예술 콘텐츠를 선도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만나 지역성과 미래 지향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상징적인 협업으

로 기획됐다.

이날 광주시 초등학생들이 함께한 운동회엔 AIF페퍼스 선수단 박정아, 박시랑, 박은서, 박수빈 선수가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땅따먹기와 공굴리기 등 두 가지 종목에 참여해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수단은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스포츠 타임머신'에도 참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선수의 기록을 저장해두고, 관람객이 원하는 기록을 선택해 직접 겨뤄볼 수 있는 디지털 스포츠 체험 콘텐츠다. 선수들의 참여로 채워진 기록은 전시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된다. 또 이를 체험한 관람객에게는 응원 머리띠, 포토앨범, 키링 등 AIF페퍼스 굿즈를 증정하는 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AIF페퍼스 관계자는 “호남 지역 유일의 겨울 프로스포츠 구단 AIF페퍼스가 미래형 디지털 스포츠 행사에 함께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CC 미래운동회'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1관에서 열린다.

본 행사는 관람객이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매주 열리는 해커톤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운동회 종목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AIF페퍼스 선수들의 스포츠 타임머신 기록은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응원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김근수 광주시청 장애인사격 감독

### 국대 소총 전담코치 선발...“한국·광주 빛낼 것”

김근수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감독이 국가대표 장애인사격 소총(SH2) 전담코치로 활약한다.

8일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따르면 '2025 장애인장애인사격 월드컵대회'에서의 우수 성적과 소총 부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발한 국가대표 소총 전담코치에 김근수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감독이 선발됐다.

2016 리우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선수 출신인 김근수 감독은 2023년 1월 광주시청 장애인사격 실업팀 감독으로 부임 이후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은

메달(박승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사격 최초 5관왕(박동안),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 세계신기록(박동안·임주현·박승우, 1902.2점) 달성 등 굵직한 지도성과를 인정받아 선발됐다.

김 감독은 오는 28일부터 개최되는 청원월드컵대회를 위해 19일부터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동참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근수 광주시청 감독은 “지도자로서는 생애 첫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점이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대한민국과 광주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국가대표 소총 전담코치에 선발된 김근수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감독(오른쪽)이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김근수 감독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체육회,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사업 선정

### 3개 종목 6000만원 국비 확보...전문·생활체육 어우러져 대회 참가

광주시체육회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들의 어울림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25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축구 등 3개 종목 총 6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종목별 대회를 지원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스포츠한마당은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엘리트체육 학생선수와 생활체육 일반학생이 함께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참가하는 대회다. 이번 선정된 종목은 축구, 유도, 스퀘시 등 3개 종목으로 총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7월~12월 중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체육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상호 우의를 다지는 이번 사업을 위해 대한체육회를 방문하며 지속 협의를 하는 등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다. 스포츠한마당을 통해 학생선수는 일반학생에게 운동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일반학생은 학생선수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배우는 등 학생으로서 성장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의 꿈나무인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스포츠한마당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건강한 스포츠활동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해 엘리트-생활-학교체육의 선순환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공모사업 국비 확보 등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PSG 이강인, 박지성·손흥민 이어 'UCL 결승'

### 아스널에 2-1 승·5년 만에 진출

### 내달 1일 뮌헨서 인터미란과 대결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면서 이강인도 박지성(은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대회 결승전을 맞이하게 됐다.

PSG는 8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아스널(잉글랜드)과의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로써 PSG는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아스널을 3-1로 제치고 2019-2020시즌 이후 5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로 결승에 올라 대회 첫 우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PSG는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오는 6월 1일 오전 4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대회 우승을 놓고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한국 선수 중 소속팀이 유럽 프로축구 최강 클럽을 가리는 UCL에서 결승에 진출한 사례는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이 세 번째다.

먼저 박지성이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으로 세 번의 UCL 결승을 맞이했고, 그 가운데 두 차례 출전했다.

이후 8년 뒤 손흥민이 베를린을 넘어가면서 손흥민은 2018-2019시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리버풀(잉글랜드)과의 결승전에서 풀타임을 뛰었으나 토트넘이 0-2로 역역시 우승 트로피 '빅이'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이제 이강인이 계보를 이을 차례가 왔다. 다만 이강인의 최근 처지를 보면 출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강인은 이날 아스널과 4강 2차전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 4일 스트라스부르와 리그1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왼쪽 정강이 부위 타박상으로 전 반만 뛰고 교체된 이강인은 큰 부상은 아닌 듯 이날 교체 선수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끝내 출전 지지는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올 시즌 리그1 29경기에 출전한 이강인은 UCL에서도 11경기를 뛰었으나 8강 1차전부터는 4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다.

이강인이 과연 UCL 결승 무대를 밟고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그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에 입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